

중·장년기 여성의 ‘돌봄 노동’ 연구

: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중심으로

이 은 주(동국대 박사수료) · 이 유 선(동국대 박사과정) · 전 미 경(동국대 교수)

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일-가족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데, 정영금(2005)은 기혼 취업여성 집단은 일-가족 양립의 부정적 여파가 가장 큰 집단으로 가족들로부터 자녀 보살핌과 관련한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. 또 조희금과 서지원(2009)은 자녀 돌봄 수행이 많으면 가정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. 이와 같은 자녀 돌봄 관련 다양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‘돌봄 노동의 사회화’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. ‘돌봄 노동의 사회화’란 가족 내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돌봄 노동을 공적영역으로 가시화한 것을 의미한다. 중·장년기 여성의 양육 및 돌봄 경험 활용 차원의 역할창출과 ‘돌봄 노동의 사회화’ 전략은 서로 구조적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회적 정책 서비스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. 그러나 현재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돌봄 활동가의 돌봄 노동은 단순 양육 활동 차원이며, 스스로에 대한 높은 역할 가치와 기대와는 달리 돌봄 이용자 관점에서 평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(이국진·정가운, 2012).

이 연구의 목적은 돌봄 활동가로 활동 중인 중·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돌봄 노동 참여 동기와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및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육아 실무 영역을 살펴봄으로써 돌봄 노동의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. 이 연구는 향후 ‘돌봄 노동 사회화’의 긍정적인 방향성 제고 및 중·장년기 여성의 사회적 역할 창출을 위한 정책의 참고자료로써 의의가 있다. 연구를 위해서 서울·경기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의 돌봄 활동가 18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조사지를 활용하였고 최종 1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.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돌봄 활동가의 공적 일자리 제도화를 통해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. 돌봄 노동의 참여 동기는 경제적 이유 이외에, 여가시간 및 양육·돌봄 경험 활용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, 이는 사회적 자원으로서 역할 가치 창출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. 공적 일자리 제도를 통해서 돌봄 노동의 전문적 주체로서 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.

둘째, 돌봄 활동가의 경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. 대부분의 돌봄 활동가들은 직무만족 및 자기 발전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. 또 돌봄 활동가 경력이 오래될수록 돌봄 활동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따로 수강하는 자기개발 의지가 높았다. 거점센터를 기준으로 돌봄 심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.

셋째, 주 양육자에게 육아 방법 및 실무를 코치해줄 수 있는 상담가로서 기능해야 한다. 육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높게 인식하는 돌봄 및 생활지도 영역과 관련하여, 육아실무 코치 교육을 지원하여 주 양육자에게 행동적·정서적 지원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

넷째, 자기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. 돌봄 활동가들은 부모상담 및 면담 기법, 이미지 메이킹,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 자기관리 영역에 대한 필요 인식 정도가 높았다. 이는 돌봄 활동 수행이외에 사회적 관계 맺음의 중요성 및 관계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. 이러한 자기 관리 능력 습득은 돌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.

이 연구의 제한점은 돌봄 활동가에 한정된 연구를 수행하여 돌봄 이용자 관점과의 개연성을 살펴볼지 못한 것이다.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용자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